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4차)

개최일시	2025. 4. 23(수) 17:30 ~ 20:00	회의장소	본관 대회의실																								
참석자 (12명)	김수민(경영대학 공동대표), 반지민(학부 총학생회장), 석지우(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송수진(학부 부총학생회장), 신동희(교무처장), 왕혜정(관리처장), 윤정원(한영회계법인), 이다연(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주연(예산팀장), 이준엽(기획처장), 이창운(총무처장), 최정아(학생처장)																										
불참자 (1명)	서유리(대학원 학생회장)																										
안건	1. 2024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의결 2. 2024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심의·의결																										
의결사항	[안건 1] 2024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 원안대로 승인 (단위: 억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2024결산</th><th>2023결산</th><th>결산 대비 증감</th></tr> </thead> <tbody> <tr> <td>수입</td><td>4,444</td><td>4,348</td><td>96</td></tr> <tr> <td>지출</td><td>4,444</td><td>4,348</td><td>96</td></tr> </tbody> </table> [안건 2] 2024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 원안대로 승인 (단위: 억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2024결산</th><th>2023결산</th><th>결산 대비 증감</th></tr> </thead> <tbody> <tr> <td>수입</td><td>9,856</td><td>7,633</td><td>2,223</td></tr> <tr> <td>지출</td><td>9,856</td><td>7,633</td><td>2,223</td></tr> </tbody> </table>			구분	2024결산	2023결산	결산 대비 증감	수입	4,444	4,348	96	지출	4,444	4,348	96	구분	2024결산	2023결산	결산 대비 증감	수입	9,856	7,633	2,223	지출	9,856	7,633	2,223
구분	2024결산	2023결산	결산 대비 증감																								
수입	4,444	4,348	96																								
지출	4,444	4,348	96																								
구분	2024결산	2023결산	결산 대비 증감																								
수입	9,856	7,633	2,223																								
지출	9,856	7,633	2,223																								
내용	■ 개회 - 기획처장이 보직발령에 따라 교직원 위원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리고, 각자 자기소개 후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을 제안하다. - 각 위원이 자기소개를 하다.																										

이
반
시

합
의

이
반
H

	- 기획처장이 위원장 호선을 제안하며, 위원장 추천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다. - 기획처장이 위원장 추천 추가 의견을 요청하고,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을 알린다. - 예산팀장이 참석위원 전원이 '위원회 준수사항 및 보안 유지 동의서'를 작성하여 녹음을 개시함을 알린다. - 예산팀장이 회의록은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로 공개해야 함을 말하며 회의록 작성일정을 설명하고, 본인 발언에 한해 수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다. - 위원장이 위원장과 교직원위원을 대표하여 기획처장, 학생위원을 대표하여 학부 총학생회장을 회의록 간서명을 진행할 대표위원 3인으로 호선하고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 위원장이 총 13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의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 ■ 회의내용 1. 2024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의결 - 위원장이 2개의 안건을 안내한 후, 기획처장에게 2024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안건을 시작하기 전 학생요구안 안건 상정을 요청하였는데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음에 대해 질의하다. - 위원장이 2번 안건 관련 부속병원 관계자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순서에 맞게 1번 안건부터 우선 진행하겠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요구안이 3번 안건으로 진행된다는 뜻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안건은 개최 7일전에 통지되어야 하므로 그 이후에 접수된 학생요구안 안건 상정은 검토되지 못하였으며, 준비된 1,2번 안건을 우선 진행
--	---

업
민
의

이준
반지
H'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2024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의 증감요인을 덧붙여 설명하다. - 위원장이 2024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해 전 위원에게 질문을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연구학생경비 중 연구비 감소 원인을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국가 R&D사업 지원 예산 감축에 따라 인공지능융합혁신 인재양성사업 등 본교 대응비도 비례하여 감소하였다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사업 기금 중 EWC건립기금과 건축기금이 각각 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 참석시 EWC 건립을 위해 2,000억 원을 인출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두 기금에서 모두 인출하는 것인지 또는 EWC건립기금으로만 해당 금액을 마련할 계획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건축기금은 교내 각 건축물의 신축, 리모델링, 교사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EWC건립기금은 해당 건물 건축을 위해 조성되어 다른 건물 신축으로 사용될 수는 없으므로, EWC건립기금은 EWC에만 사용되고 부족할 시 건축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참고로 신축기숙사건립기금이 75억 원 남아 있는데 이는 기숙사 신축 후 잔여 금액으로 해당 건물의 개보수 등에 사용되므로 신축 후에도 해당 건물의 건축기금이 있을 수 있음을 부연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시설관리비 중 이화포스코관 GIS 교체에 6억 원이 사용된 것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학생요구안에 배리어프리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바 장애인편의시설 2억 원의 내용도 설명을 요청하다. - 관리처장이 GIS(Gas Insulated Switchgear)는 교내 여러 건물로 전기를 보내는 고압수배전반으로, 노후화에 따라 교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장애인편의시설 2억 원은 ECC 및 주변에 장애인 보행구역 확대, 유도 싸인 등 시설 보완에 사용하였다고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학술지원사업은 장학금 내에서 지원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

	- 학생처장이 장학금과 별도라고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학술지원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어느 항목에 포함된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술지원사업은 포괄적인 용어로 보이는데 대학혁신지원 사업에는 수십개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해서 지원될 수도, 새로운 사업이 생길 수도 있고, 작년에는 큰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일시정지되거나 교체될 프로그램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다. 또한 해당 지출은 학생경비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학부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라고 설명하다. - 학생처장이 기획처장 발언과 같이 학생지원팀 학술지원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되던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정보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1학기는 정지된 상태라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술지원사업 보조에 따라 매년 프로그램 기간이 다르게 되고 있음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글로벌프론티어 사업이 없어진 것을 예시로 하다. - 학생처장이 글로벌프론티어 사업은 없어진 사업이 아니고 1학기에 일시정지되었음을 홈페이지 공지하였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1학기에 참여하려 했던 학생들은 계획이 흐트러졌으며, 유사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정부 보조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교육부는 계속사업이라고 하지만 입금 뿐 아니라 지원 예정 금액조차 미리 알려주지 않아 집행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미래혁신사업은 학생위원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필수 사업의 경우 보조금 입금 전이라도 교비로 선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단위 사업의 경우 최대한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정되었던 사업의 지연이나 변경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하다. 입금 지연 뿐 아니라 사업 요구사항이 많고 변경
--	--

이/2

한 7

H?

도 발생하여 그에 맞는 사업 재구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을 구성하고 인센티브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여 2학기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2024학년도 추경예산 대비 결산 비교시 관리운영비가 약 50억원, 연구학생경비가 약 30억원 감소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추경예산 대비 결산은 일정한 수준의 집행률 차이가 나고, 이번 결산도 마찬가지로 약 97%가 집행이 되어 예년 수준이라고 하며, 추경예산은 10~11월 경 편성이 되는데 공공요금이 2022~2023년에 급격히 인상된 사례가 있어 축소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과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관련 건물의 공공요금을 직접 지출하여 교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시설관리비 중 조형예술관 교사개보수 1억원의 사용처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작년 각 단과대학의 시설 개보수 뿐 아니라 교육용 기자재에 다양한 집행이 있었으며, 그 중 조형대는 공사비 뿐 아니라 여러 환경 개선, 기자재 등 2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음을 알리다. 세부내역으로 PC실습실 및 각 전공 실기실 기자재 구입 외, 조소 실기동, 동양화 실기준비실, 도자예술 실기실, 디자인학부 환경개선공사, 패션디자인 실기준비실, 서양화 실기실, 섬유예술 염색실 공사 등을 안내하다.

- 관리처장이 조형대 개선 사항으로 수도시설/환기시설로 6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B/C동 화변기 교체, A동 누수에 따른 외벽 도장, 외부 난간 개보수, C동 장애인 승강기 교체, A동 장애인 화장실, C동 냉난방/조명 개선, A동 외부 난간 설치 등 개선하였고 A동 옥상방수를 올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대표가 C동에서 녹물이 발견되어 수도시설 교체가 C동에 적용되었는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수도 녹물은 A,B동 전수조사해서 개선하였으나, C동은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법인에서 90억 원 정도 전입이 되었으며, 60%를 딱 맞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56억 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사장님이 앞으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학교 측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다.

영
민
의

이?
한
H?

- 기획처장이 우리 법인은 전입금 법정의무를 충족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법인에 요청을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에서의 학생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으나 법인의 여건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전입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답하다. 다른 학교와는 달리 대부분의 자산을 법인이 아닌 학교가 관리하고 있어 법정 전입금이 많은 학교와는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법인 이사장님의 말씀은 전반적 사회 분위기상 등록금을 지속 동결하면서 대학의 경쟁력이 하락해온 것에 대한 일반론적인 내용으로 이해하며, 오늘은 등록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며 앞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시설관리비 지출 중 기숙사 운영 10억 원의 내역을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본교 기숙사는 세 개의 기숙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우리집의 노후화가 심하고 I-HOUSE도 노후화 정도가 심하다고 언급하다. 기숙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설 보수를 하고 있으며, 여러 건의 공사들이 합쳐진 지출금액이라고 설명하다.

- 관리처장이 I-HOUSE의 사실 노후 시설 환경 개선(방충망 교체, 벽체 도장, 세면대 교체, 발코니 난간대 보수)으로 7억 원 정도 지출하였다고 부연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E-HOUSE 누수에 대한 배관공사 등도 있었음을 부연 설명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기숙사의 온수 중단을 언급하며, 도색 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냉난방, 온수 등에 더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준공된 지 오래된 건물이 많으며 설비 내구연한은 20년 정도이므로 교체를 해왔어야 정상이나, 등록금 동결을 지속하며 예산 제약으로 인해 교체 주기임에도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교체하지 못했음을 언급하다.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정을 30년 이상 노후 건물에 최대한 반영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다만 동시에 전체 교체는 어려우므로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학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사용자 입장에서 시급한 부분을 알려주면 우선 반영하겠다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산안에는 학생요구 관련한 보수가 있었음에도 학생 대상 설문에서 체감하지 못했다는 답이 많았음을 언급하다. 학생요구안을 한 번 더 검토하고 학생 의견에 대한 설문을 받는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을 보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전기자금이월금이 상당히 많음을 언급하며 이 월금을 학생요구안에 투자하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월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전기자금이월금의 구성 내역인 선급법인세 39억 원과 목동의학관 매각 대금 이월금 32억 원 등에 대해 각각 설명하며, 올해 지출하지 않고 남긴 자금이 아니라고 설명하다. 실제로 예산팀에서는 예산을 과대편성해서 남기거나 다음 해로 이월시키지 않도록 매우 신경쓰고 있음을 부연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의학관 매각 관련하여 의료원과 대학본부와 법인의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법인은 이화학당이며 이화학당의 설치학교에 초,중,고,대학교가 있고, 대학교의 장은 총장, 의과대학은 본교 단과대학 중 하나이고, 의무부총장이 의료원장을 겸직하고 있음을 답변하다. 회계적으로 법인은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이루어져 있고 학교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가 있음을 설명하다. 의료원 매각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법률적으로는 용도 변경이며 교육용 건물을 부속병원 용으로의 변경이고 감정평가를 거친 평가금액 150억 원을 5년 간 30억 원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년 지급받고 있으며 2025학년도에 마지막 회차가 입금 예정임을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교비회계와 의료원회계는 같은 법인이어도 완전히 분리된 것이며, 교비회계는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할 수 없고 건축을 제외하고는 적립도 할 수 없으며, 의료원이 본교 건물을 단순 사용하는 것조차 제공할 수 없다고 부연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결산에 예비비가 없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예비비는 예산으로만 편성하고 실제 집행시에는 해당되는 계정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므로 결산에는 없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셔틀버스에 대해 대학혁신사업비가 3억 원 추가 배정되었음을 언급하며 올해의 진행 예정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1년 셔틀버스 용역비의 변동은 없으며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몇 개월분을 충당하느냐에 따른 차이라고 설명하다. 또한 셔틀버스 관련 요구안 내용을 보면 학생 간 상충이 있으며 본교는 사고 위험이 큰 지형이므로 배차 간격, 차량 운행 횟수를 검토하여 지금의 형태가 된 것이고 총무처에서 학생 요구를 지속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다.

- 총무처장이 공대 노선, 증차, 배차 간격 등의 셔틀버스 관련 학생 요구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반영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우선 안전사고가 없어야 하며 용역 기사분들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그 분들의 동의도 받아야 하므로 반영 가능한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여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공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설문하였으며, 한우리 집 행 일부를 공대 행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접수입 중 삼성홀 보상금 28억 원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ECC 삼성홀에서 2023학년도에 화재가 있었고 이와 관련된 보수공사를 대규모로 진행하였고, 보수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보험사에서 28억 원을 받았음을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삼성홀이나 대강당 등 외부 대관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한 대관 수익은 어느 항목에서 확인 가능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우선 대강당의 경우 대부분 채플로 사용하고 주말 대관이 많지 않아 수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답하다. 대관 수입은 교육부대수입 중 증명 및 대여사용료에 포함되어 있고 임대업체 수입, 기숙사비, 증명사용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다. 임대업체 임대 수입의 경우 코로나 이후 배달 문화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수입 증대 또는 요구사항 반영 등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입점 업체에 대해 요구안을 전달할 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여 답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대보다는 대관에 대해 궁금한 것임을 언급하며 대관 수입이 임대 수입에 포함되는 지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대관 수입이 임대 수입에 포함된다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ECC 영산극장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기부금으로 학생 공연 등 문화 행사를 위해 극장을 리모델링하였으며, 학생들의 호응이 좋고 졸업생들의 좋은 의견들을 반영하였음을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산극장 운영방식에 대해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영산극장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조성되었고 기부자의 뜻에 따른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외부 운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위해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과거 등심위나 협의체에서 비건학식을 천원의 아침밥 등에서 시도해 볼 수 있겠다고 한 답변을 언급하며 진척사항이 있는지 질의하며 ECC푸드코트에는 비건식이 없음을 덧붙여 언급하다. - 학생처장이 비건학식은 저번 등록금심의위원회 당시 학생 8대요구안 중 하나로, 해당 내용이 총장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5월 31일 비전 선포시 포함될 것임을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ECC 푸드코트에서 비건학식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ECC 푸드코트는 학식을 제공하는 임대업체가 아니므로 학생식당에서의 비건학식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토지·건축에서 헬렌관 재건축 비용 3억 원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신축은 설계부터 공사까지 매우 오랜 과정이 필요하며 헬렌관 재건축은 현재 설계용역 단계로, 2023학년도에 시작하면서 2024학년도에 설계용역비가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EWC 신축으로 헬렌관과 생활환경관 개보수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2023년에 헬렌관의 많은 곳들이 이화알프스관으로 이전하면서 리모델링 비용을 크게 지출하였음을 언급하고, 대규모 신축 시 기존건물에서의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나, 한정된 예산을 재건축을 앞둔 건물에 크게 집행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낮을 수 밖에 없음에 대해 이해를 부탁한다고 답변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임의특정목적기금 중 57억 원을 우수인력 확보
--	---

	지원에 사용했다고 확인되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인건비에 쓰였다고 답변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전임교원 확보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모두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한 것이라고 답변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신입교원 인건비인지 기존 전임교원 인건비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기존 전임교원과 신입교원 재원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부족한 인건비를 기금에서 인출한 것이라고 답변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매년 전임교원 퇴임이 있고 분반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더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기금은 학교 재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총원은 교무처에 인력보강 관련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있으면 인출이 필요할 수 있으나 수지를 검토할 필요는 있음을 언급하며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인출이 예상된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분과 관련하여 공문을 일주일 간격으로 주고 받아 왔음을 언급하며 인상분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장학금의 경우 가계곤란 장학금은 소득분위, 휴복학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을 현재는 알 수 없다고 답하다. 시설 개선은 진행할 예정이며 이화신세계관에 몇 년간 진행해 온 공사의 마지막 연도인 올해에만 7억 원을 편성했음을 언급하다. 다각도로 시설 노후화 순서와 학생 수업 빈도 등을 고려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시급성 때문에 경영대를 우선 진행하고 이후에 다른 공간들도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공문으로 보낸 시설 요구안 내용을 언급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지원팀을 통해 회신한 공문 내용과 같이 문고리 보수 등 간단한 것은 시설보수의뢰 시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며 예산팀보다 단대 행정실을 통해 더 빠르게 진행 가능성을 안내하다. 큰 규모의 투자는 예산팀 논의가 필요하나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 소요 예산을 확인
--	--

하는 것은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므로 우선순위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시급한 건물부터 진행하여 이화신세계관을 개선하는 것이며 그 이후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정해진 계획은 아니나 작년에 교육관 B동의 반만을 개선하였으며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 개선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추후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어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답하다. 또한 대강당 등도 개선이 시급한 상태임을 알리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영산극장의 경우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생활환경관 극장과 다르고 학생 신청 기간이 짧아 사용이 어려움이 있는 점에 대해 검토를 바란다는 인문대 대표의 의견을 전달하다.

- 위원장이 안전에 대해 추가 질의를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고정부채 상황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계약 종료 임대업체에 반환한 임대보증금임을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EWC 건축으로 인해 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학생들의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며 등록금 후속 협의제도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협의체 또한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하다.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이 큰 부담이라는 점이 추후 예산 편성 시 반영되었으면 하고 단대별 요구사항 또한 5월에 나올 액션플랜에 잘 반영되기 바란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장학금 지출 증가에 대해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등록금에 비례해 장학금 지출이 많아진다고 언급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입학장학금 등 장학금별 상세 내용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장학금은 종류가 매우 많고 오늘 회의에서 준비된 자료는 아니라고 답하다.

- 위원장이 질문의 취지가 입학장학금에 대한 것인지 확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항상 학생요구안에 입학장학금 수혜 기준을 낮춰달라는 내용이 포함됨을 언급하며 지금의 수혜기준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결산에서 확인되는 입학장학금 실제 지출 금액과 수혜 비율을 알아야 기준을 납득할 수 있다고 언급하다.

- 기획처장이 본 위원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며, 기획처에서 외부, 내부, 적립금 이자수입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장학금 규모를 결정하면 어떠한 내용으로 지급할 지에 대해서는 해마다 변경되고, 이는 중앙장학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고 설명하다. 중앙장학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예산팀이 아닌 학생처가 주관하여 진행된다고 답변하다.

- 학생처장이 입학장학금 수혜기준 완화는 호크마교양대학에서 나오는 요구사항이며, 실제로 A학점의 비중이 높으므로 현재의 교수자율평가제 하에서는 수혜기준 완화가 어려움을 여러 차례 답변한 바 있다고 부연설명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단과대학별 실정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장학금 수혜기준이 4.0인 것은 높은 기준으로 보이고, 등심위에서 질의하는 것은 입학장학금으로 편성한 예산이 수혜기준 미달로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생처장이 4.3 만점에 4.0인 A0가 전교 평균으로 60퍼센트에 육박함을 다시 언급하며, 호크마교양대학 1학년의 경우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단과대학별/전공별 입학장학금 수혜비율에 차이가 난다는 점은 오해라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스크랜튼대학 자유전공을 예로 들어 실제 2학년 단과대학으로 진입했을 때 단과대학별로 입학장학금 수혜 난이도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다.

- 학생처장이 인공지능대학의 경우만 수혜가 어렵고 다른 단과대학들은 무난히 수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공지능대학의 경우도 모니터링 중이라고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이 부분은 중앙장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환기시키고, 학생처장이 위원장으로서 인지하고 있으므로 추후 중앙장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의결 진행을 제안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무난하게 수혜받는다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A0가 60퍼센트를 차지하면 수혜기준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다. - 학생처장이 이 부분의 문제 제기는 호크마교양대학에서만 있었고, 호크마교양대학과 스크랜튼대학에서 인공지능대학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만 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특정 단대에서 수혜 비율이 특히 떨어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다만 아직 인공지능대학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모니터링만 하는 중이며, 지속적인 문제로 판단되면 대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A0를 받은 학생이 60퍼센트라는 것이 입학장학금 대상 학생 기준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전체 학생 기준이라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입학장학금 대상 학생의 실제 수혜 비율을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수혜 대상에서 탈락된 학생의 수는 알고 있다고 답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입학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학생을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은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정확한 금액은 휴복학이 많은 관계로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고 답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금액이 아니라 수혜 대상 학생 중 실제 수혜 학생 비율을 알고 싶다고 발언하다. - 학생처장이 총학생회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정확한 데이터를 공문으로 답변하겠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2024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2024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을 의결하다.
--	---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들이 결산안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비민주적 구조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임을 설명하다.

- 관리처장이 조형대 수도권은 A,B동만 전수조사하였음을 공유하고, C동 녹물을 포함 문제가 있는 부분은 행정실로 의뢰하면 처리하겠다고 발언하다.

2. 2024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심의 및 의결

- 위원장이 2024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심의를 제안하여 부속병원의 전략기획본부장, 서울병원 및 목동병원 재무팀장이 배석하다.

- 위원장의 요청으로 목동병원 재무팀장이 의료원의 2024학년도 결산(안)에 대해 전년도 결산 대비 증감요인을 덧붙여 설명하다.

- 위원장이 2024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에 대해 전 위원에게 질의를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의료 수익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며, 지원금 수익도 전년 대비 200억 원 이상 증가하였는데 지속 가능한 수익인지 일회성 수익인지 질의하다.

- 전략기획본부장이 2024년 전공의 사태로 인한 비상진료금 등 여러 지원 사업이 있었으며 지원 사업의 기간 종료 후 사업이 지속될지 여부는 현재 알 수 없다고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비유동성부채가 287억 원이 감소하였고 특히 장기차입금이 247억 원 감소한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감소한 부분이 유동부채 중 매입채무로 변환이 된 것인지, 매입채무는 매출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인지 질의하다.

- 서울병원 재무팀장이 매입채무가 5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은 의료수익이 1,600억 원 가량 증가하면서 그로 인해 재료비 등 증가로 인한 것이고 장기차입금이 감소한 것은 유동성 부채로 변환된 것이라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지난 대학평의원회에서 표가 공시자료와 맞지 않는 피드백이 있었는데 개선이 된 것인지 질의하다.

- 목동병원 재무팀장이 대학평의원회 자료의 전체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단지 계정 과목이 많아 이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 추후 공시되는 계정과목과 위원 제공 자료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답변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의료원 합산 재무제표의 자산 금액과 두 병원 재무제표의 자산 단순 합계가 정확히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다.

- 목동병원 재무팀장이 두 병원은 기본적으로 각각 회계처리를 하고, 의료원 합산시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부분이 있어 단순 합산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회계상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700억 원 가량 상회하고 있고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의 경우라면 계속기업에 문제가 있는 재무제표인데 실제 병원에서 자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 목동병원 재무팀장이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유동비율인데 현재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많은 상태인 게 맞으며, 이는 의료원 운영 미숙이라기보다는 서울병원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 차입금, 장비 리스비, 그 외 재료비 대금 지급 기일 연기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의료원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이번에 수입이 23% 증가하는 등 수입은 증가하고 비용은 최소화하여 부채를 빨리 상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병원 관계자 전원 퇴장 후 위원장이 2024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반대하여 2024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을 의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병원 관계자의 대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속병원회계를 2번 안건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위원장이 학교가 우선인 위계에 따른 부분이므로 이상하지 않다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병원 관계자가 대기해야 하니 부속병원회계를 1번 안건으로 처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다. 또한 안건 상정 요청서를 늦게 보내기는 했지만 의결 안건은 아니었고 신임 처장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이므로 학생요구안을 논의하기를 기대했지만 회신조차 오지 않아 아쉬웠다고 하며, 오늘 언급되었던 입학장학금 요구안과 같이 다른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안건들이 있는데 5월 실무협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

결
민
의

이
반
H

	되므로 등심위 후속협의회를 처장들과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등심위 후속협의회 요구사항은 2월 21일 모두 답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요청하는 부분이 8대 요구안인지 5대 요구안인지 확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심위에서 제기한 예산 관련 12가지 요구안이 라고 답하다. - 학생처장이 8대 요구안으로 공문 전달을 받아 이에 대해 답변 완료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답변은 완료되었으나 해결된 것은 아니므로 처장단과 논의할 자리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 학생처장이 8대 요구안은 답변이 완료되었고, 5대 요구안은 5월 12일에 답변 예정이며, 총장 공약사항은 5월 31일 비전 선포시 발전계획과 액션플랜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 후 논의하기 바란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액션플랜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인 것은 알고 있으며, 등록금 인상액의 규모와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학생 설명에 어려움이 있음을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가계곤란 장학금과 시설 개선으로 대략적인 계획은 정해진 것인데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억 원을 가계곤란 장학금, 7억 원을 시설 개선, 3억 원을 장학금으로 보면 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3억 원 장학금의 경우 성적우수나 가계곤란 장학금이 아닌 어떤 유형의 장학금을 의미하는지 공문으로 송부하면 학생처와 논의하겠으며, 시설 개선은 이미 7억 원 이상 진행 중인 상태라고 안내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7억 원 이상 시설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면, 장학금에 대해서는 용도를 공문으로 송부하겠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 요구안은 여러 경로로 접수되고 있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건물이 노후화되어 요구 사항을 한 번에 조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고 발언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요구안을 학생처에서 취합하여 각 부서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학생처에서
--	---

도 요구안이 다양한 형태로 접수되면 각 부서와의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요구 사항을 정리하고 조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정리해서 알려주면 효율적으로 학생 요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어느 때보다 소홀하지 않게 검토 중이며, 형식적이 아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교의 노력에 대해 이해하며, 다만 실무협의 회에서는 요구사항에 대해 예산의 제약으로 어렵다는 답변이 많아 등심위에서 논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생처장이 8대 요구안은 답변 완료되었고 5월 12일에 5대 요구안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8대 요구안 답변은 완료되었지만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하다.

- 학생처장이 8개 중 2개는 불가하고 6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고 전달받았다고 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답변을 한 경우에도 공문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다.

- 학생처장이 8대 요구안이 기숙사나 검토가 불가능한 로스쿨 지원반 운영 등을 제외하고는 5대 요구안과 상당 부분 겹치고 유사하여 5대 요구안 답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다.

- 위원장이 학생 요구사항은 각 부서별로 검토 중인 상태이고 긍정적이라는 답변 수준으로 머물지 않고, 계획을 세워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학생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는 것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있다고 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에서 많은 부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이해하겠으며, 시설 개선 7억 원 투입 관련은 내역을 공문으로 송부해 주기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관리처와 논의 중인 사항으로 이화신세계관을 우선 진행한 후 추후 어떻게 진행할지 공문으로 송부하겠다고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교비회계 심의가 소홀해지는 점 관련하여

	부속병원회계 안건을 1번으로 하는 방안을 재차 요청하다. - 위원장이 처음 참석한 회의지만 당연히 학교가 우선이고 부속병원 회계가 2번 안건인 것이 이상한 흐름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나 요청사항을 이해했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다.
--	---

0/2

반7

H²

